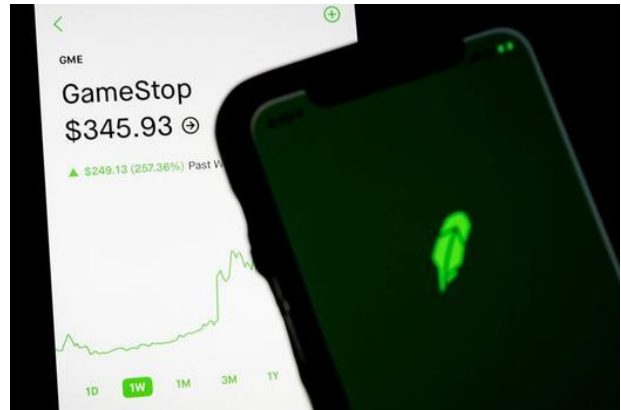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코로나 19 백신 경쟁과 환율 전쟁
 - ◇ (시장진단)-외인 나흘째 역대급 주식 매도 공세..배경은
 - ◇ (초점)-손실보상 지연에 '4 차 재난지원금'으로 방향 튼 與..채권 안도장세(?)
 - ◇ (시장진단)-박스권 상단 단숨에 뚫은 달려 /원..단기 추세 바뀌었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 앱에 미국 업체 게임스톱 주식 거래 정보가 표시된 모습을 합성한 것이다. 최근 게임스톱 주가 급등이 화제다. (로이터/브렌단 맥더미드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2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18.8	-1.4%	-2.9%	+6.5%	유로	1.2136	-0.3%	-0.6%	+8.9%
100엔 대비	1,067.4	-0.2%	-1.5%	+1.1%	엔	104.68	-0.9%	-1.4%	+5.2%
유로 대비	1,356.4	-0.8%	-2.2%	-2.3%	위안	6.4500	0.1%	1.2%	+6.7%
위안 대비	173.80	-1.9%	-4.3%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29,982.62	-3.3%	-2.0%	+7.2%
코스피	2,976.21	-5.2%	3.6%	+30.8%	나스닥	13,070.70	-3.5%	1.4%	+43.6%
코스닥	928.73	-5.2%	-4.1%	+44.6%	S&P500	3,714.24	-3.3%	-1.1%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84.80	-4.7%	3.4%	+19.8%
국고채 3Y	0.971%	-2.2bp	-0.5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20%	-0.6bp	-1.5bp	-14.5bp	미국채 2Y	0.111%	-1.4bp	-1.0bp	-144.0bp
국고채10Y	1.768%	1.0bp	5.5bp	+3.0bp	미국채 10Y	1.071%	-1.5bp	15.9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2.20	-0.1%	7.6%	-20.5%	한국 5Y	25.6bp	0.7bp	3.7bp	+0.1bp
금(현물)	1,846.09	-0.3%	-2.7%	+25.0%	일본 5Y	15.2bp	0.5bp	0.2bp	-4.5bp
TR상품지수	2,698.07	-1.0%	0.7%	+7.8%	중국 5Y	32.0bp	1.4bp	4.0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1일(월)>

- 산업부, 1월 수출입 동향(09:00)
- IHS 마켓, 한국 1월 제조업 PMI(09:30)
- 기재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10:00)
- 금융위,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12:00)
- 한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12:00)

<2일(화)>

-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 한은, 1.1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3일(수)>

- 한은, 1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20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4일(목)>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12:00)
- 기재부,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PD) 선정(17:00)

<5일(금)>

- 기재부,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14:00)
- 한은, 2020년 12월 국제수지(잠정)(08:00)

<7일(일)>

- KDI 경제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1일(월)>

- 일본, 1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1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18:00)
- 유로존, 12월 실업률 (19:00)
- 미국, 1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23:45)
- 미국, 12월 건설지출 (자정)
- 미국, 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자정)

<2일(화)>

- 유로존, 4분기 GDP 잠정치 (19:00)
- 미국, 1월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 (23:45)

<3일(수)>

-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18:00)
- 유로존, 1월 CPI (19:00)
- 유로존, 12월 생산자물가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미국, 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22:45)

<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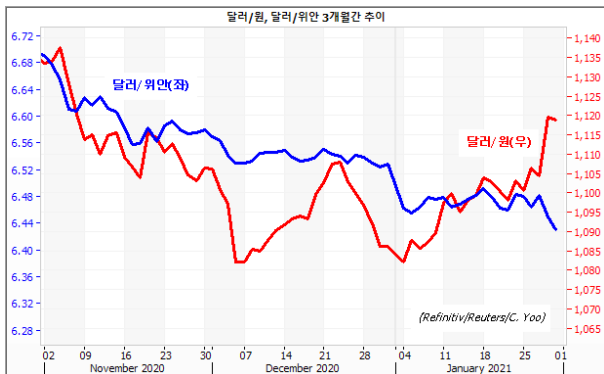
- 유로존, 12월 소매판매 (19:00)
- 영국, 영란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 (21:00)
- 영국, 영란은행 금리결정 · 회의록 공개 (21:00)
- 미국, 1월 챌린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4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2:30)
- 미국, 12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 공장주문 (자정)

<5일(금)>

- 일본, 12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12월 경기 동행 · 선행 지수 (14:00)
- 미국, 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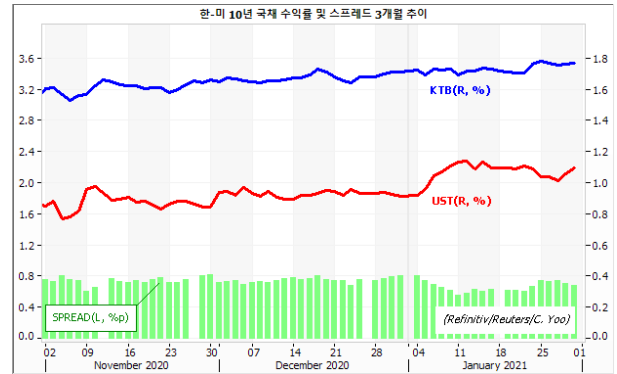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고정 탐색 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5-1135 원이다.
-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그간 원화 강세를 견인했던 증시 강세와 달러 약세 모멘텀이 흔들리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상승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 미국 실행정부의 부양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이미 반영된 반면, 코로나 19 사태 악화와 백신 공급 지연 우려 등에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 논란 속에 최근 미국 증시에서 헤지펀드의 공매도 손실 파장이 어디로 뿔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위험회피 심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 지난 한 주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5.3 조원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역시 외국인들의 증시 매매 동향이 주된 변수로 꼽힌다.
- 대외 여건상 위험회피 성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면 수출업체들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 당분간 달러/원 상승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커졌다.
- 이번 주 주목할 국내 경제지표로는 1월 수출입 실적에 꼽힌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한편, 대외 지표로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1월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5일 발표될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숏 스쿼즈 장세의 지속과 변동성 확대 여부,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 입찰 결과 등을 반영하며 움직일 전망이다.
- 4월 보궐선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형평성 논란과 피해 실사,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채권 투자자들은 당장 '100조원 추경 편성' 같은 노이즈에 시달리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하지만 173조원에 달하는 올해 국고채 입찰조차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당장 호재가 터져도 딱히 채권 매수에 손이 안 나가는 이유일 것이다.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진 상태고 미국에선 게임스톱 사태로 '버블' 논란이 중심에 섰다.
- 한국은행은 2일에 지난달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발표한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 논란과 관련한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통계청은 같은 날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로이터 설문조사 결과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5%(8명 응답), 전년동월비 0.3%(9명 응답) 각각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역시 관심이다. 강화된 코로나 19 대응조치와 최근 늘고 있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은 12월에 이어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칼럼)-코로나 19 백신 경쟁과 환율 전쟁

(※ 이 칼럼은 마이크 돌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레이스, 조기 정책 전환, 그리고 환율 전쟁까지 겹쳐지면 올해 투자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팬데믹 종결 속도는 모든 국가와 시장에 분명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가들은 어떤 국가가 집단 면역을 먼저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 19 백신 배포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100 명당 30 회분 이상의 접종을 실시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중에는 영국과 미국이 각각 100 명당 5 회, 7 회분의 접종을 실시했다. 유럽,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뒤쳐져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셰켈, 파운드, 달러가 유로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이 지금까지의 백신 성공 정도와 일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로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HSBC, 도이치은행, 씨티 등이 이번주 공개한 일련의 보고서는 백신접종 과정의 복잡성, 접종을 둘러싼 불확실성, 감염률과 입원, 백신 배포 속도, 경제·제한조치 측면에서의 서로 다른 시작점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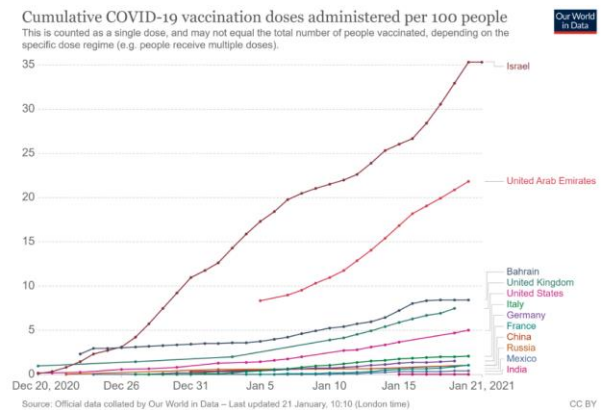
HSBC의 재닛 헨리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그의 팀은 지난주 "백신 출시 속도·효과와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사이의 긴장은 흔치 않은 불확실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곳에서 팬데믹이 억제될 때까지 모든 곳에서 완전히 억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로빈 윙글러 도이치은행 전략가는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인구의 60-7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집단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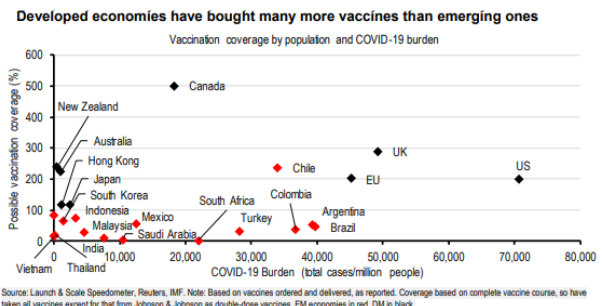
역' 형성 시기가 주요국들에게 있어 늦가을까지 미뤄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층의 20-25% 정도가 백신접종을 마친다면 제한조치들이 뚝뚝 신속하게 해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은 3 월경 이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4 월, 유럽, 캐나다, 호주는 5 월쯤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러나 "집단 면역이 여름에 강한 경제 반등에 있어 필요한 요건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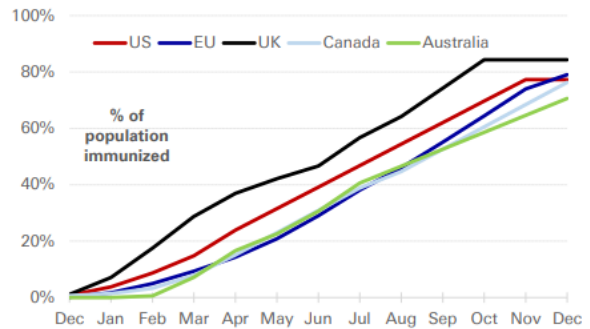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Figure 1: Major economies likely to vaccinate their vulnerable by late spring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백신접종과 시장과의 관계는 덜 분명하다.

비즈니스와 소비의 정상화는 봉쇄조치 해제에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대규모 지원책을 조기에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며, 풍부한 유동성 지원에 따른 경제 회복을 이미 반영해 온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진 듯 하다.

가장 먼저 반등한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촉진할 것이다. 대체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통화를 약화시킬 것이다. 금리 인상은 현재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누적된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향후 최대 2년동안은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달러에 대해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압도적인 주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유로존이나 일본보다 더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목표치 이상의 상승을 더 오래 용인할 것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약 연준이 이와 동시에 금리와 국채 수익률을 2년 동안 효과적으로 조절할 경우, 달러에 대해 스트레스는 실질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더 떨어질 때 느껴질 것이다.

미국과 유럽 국채 10년물의 상대적인 실질 금리는 지난 2주 동안 달러에 유리하게 다시 올랐지만, 조기 백신접종 성공과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재가동할 경우 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 입안자들은 글로벌 경제 반등 속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피해를 입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힘든 상황을 보내는 기업들에게 민감한 시기에 소위 환율 전쟁에서 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켈의 반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백신 낙관론 때문이었고, 지난주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대규모 개입으로 상승세는 주춤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유로/달러의 연이은 강세로 유럽중앙은행(ECB)은 구두로 여러차례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하게 국가 백신접종 레이스나 통화 강세 추측에만 의존해 베팅하는 것을 경계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정상화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일 수 있다.

(시장진단)-외인 나흘째 역대급 주식 매도 공세..배경은

(※ 1월 29일 장 중 송고한 기사입니다)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흘 연속 대규모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은 29일 오후 2시 38분 현재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8300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이 기간동안 외인들의 순매도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지난 사흘간 외인 매도 종목은 삼성전자(1.6조원), SK하이닉스(4000억원), LG화학(3900억원), 삼성전자 우선주(2700억원), 기아자동차(2100억원) 등의 순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약 4.6조원 순매도해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전 세계 주가가 급락했던 작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외인 매도 공세 배경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게임스톱' 이슈를 계기로 과열 우려가 부각된 점을 꼽았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이후 급격하게 유입된 헤지펀드로 알려진 외국계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변동성에 대응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중"이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 또한 "게임스톱 이슈는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이라면서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소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 과열 우려를 상기시키면서 관망 심리가 도드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중국 단기금리 급등에 따른 유동성 회수 우려가 부각된 점 또한 주목됐다.

중국 은행간 시장의 오버나잇 가중평균 레포 금리는 오늘까지 닷새째 상승해 3.3%대로 진입하면서 인민은행의 금리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타이트한 중국 단기 유동성 상황에 유동성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하락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증시는 전일 선반영해 2%대로 하락했고, 이날도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축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이던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현재 1% 가까이 하락 중이다.

오후 2시 38분 현재 코스피는 3.3% 하락해 3주 만에 3000 선을 밀돌고 있다.

(초점)-손실보상 지연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방향 튼 與..채권 안도장세(?)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4월 보궐선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시일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향후 채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논란이 채권시장을 뒤흔든 직후인 만큼 10조~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수급 부담감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규모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

확대 가능성도 있어 안도장세를 기대하는 건 선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방향 튼 與..채권시장 '학습효과' 기대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라디오 방송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4월 보궐선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려면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정확한 피해규모에 대한 실사,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미 추진 중이던 4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일단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고 향후 피해는 장차 입법을 거쳐 제도화될 손실보상 절차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논의가 지연될 경우 채권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장 '100조원 추경 편성' 같은 '노이즈'에 시달리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해 세 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겪은 '학습효과' 덕에 재난지원금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0조~20조원 사이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물량 소화 능력 등을 감안해 금리 반응폭을 가늠해 볼 수 있기도 하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 10년물 금리가 1.8%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에 따라 안도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100조원 추경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이 그것 때문에 밀린 것은 아니었다"며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현실적으로 20 조원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15 조~20 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4 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 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더 밀리기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당장은 불확실성이 있으니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도 이르다..'불확실성 여전하고 금리 상단 열려 있어'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국채발행물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안도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정상화 기대감, 주식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전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 하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4 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 외은지점 트레이딩헤드는 "4 차 재난지원금만 놓고 본다면 월별 발행량이 1 조원 정도씩 늘어난다고 해도 시장이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채권금리 하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역대급 발행과 함께 금리 상단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선 중앙은행들이 최소 중립 스탠스로만 전환해도 채권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4 월 보궐선거가 막상막하로 진행됐을 때 정치권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도 솔직히 예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C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4 차 재난지원금은 다 아는 이야기긴 하다"며 "하지만 국고채 입찰 본격 게임이 2 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당장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2 월에는 한 주를 빼면 매주 두 번씩 국고채 입찰이 있고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모집 방식 비경쟁입찰이 예정돼 있다"며 "176 조원 규모 국고채 발행이 이제 시작인데 시장이 많은 재료들을 얼마나 선반영했는지 가능하면서 강세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시장진단)-박스권 상단 단숨에 뚫은 달러/원..단기 추세 바뀌었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28 일 장 중 2 개월 만의 최고치로 급등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단기 전망은 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환율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공매도 손실 관련 파장에 3 개월 만의 최대폭 하락하자 28 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에 편승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달러/원은 오전 한때 10 원 넘게 상승하며 작년 11 월 이후 최고치인 1116 원 부근까지 급등해 단기 박스권 상단인 1110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다만, 달러가 속도 조절에 나선 데다 무엇보다 강력한 네고 공세에 환율은 1110 원대 초반으로 재차 밀렸다.

이같은 환율 전개 양상 속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단기 섹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침예하게 엇갈리는 단기 원화 전망

중·장기 달러 약세 전망에 기댄 투기 세력들의 달러 순숏포지션이 10 년 만의 최대로 확대돼 있는 점은 큰 부담 요인이다.

최근 달러가 뚜렷한 방향성은 없어도 달러지수가 90 선에서 지지되는 점은 이같은 포지션 부담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원화 포지션에도 그대로 대입된다. 작년 매 분기 비거주자들은 달러/원 NDF 를 순매도했다. 이에 역외 투자자들의 달러/원 포지션도 매도 쪽인 것으로 추정됐고 연초 이같은 포지션의 언와인딩이 꾸준히 감지돼 왔다.

이에 향후 달러 반등 시 원화 추가 약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A 증권사 외환 딜러는 "여전히 달러/원의 묵은 숨이 있다고 본다. 증시로 인한 리스크 오프 여건이 지속될 지가 관건이지만 환율 1115 원 선이 본격 뚫리면 추가 숨 커버를 열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작년 말 달러 약세가 가속화된 데는 유로 강세 영향이 컸지만 최근 유로 강세가 주춤해졌고, 미국 국채금리, 바이든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면 달러가 딱히 빠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은 네고가 달러/원 상단을 막아서지만 달러 반격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조정 압력에 외환 수급추도 환율을 부추길 것이라는 해석도 곁들여진다. 그러면서 환율이 1130 원 선까지 추가 상승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이 아직 대체로 굳혀졌다고 보기에는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열기가 더 지속되고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 경기는 회복되면서 이에 따른 혜택을 원화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연준은 자산시장 과열에 대해서 다소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정책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자산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저금리와 자산 가치 간의 관계는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이트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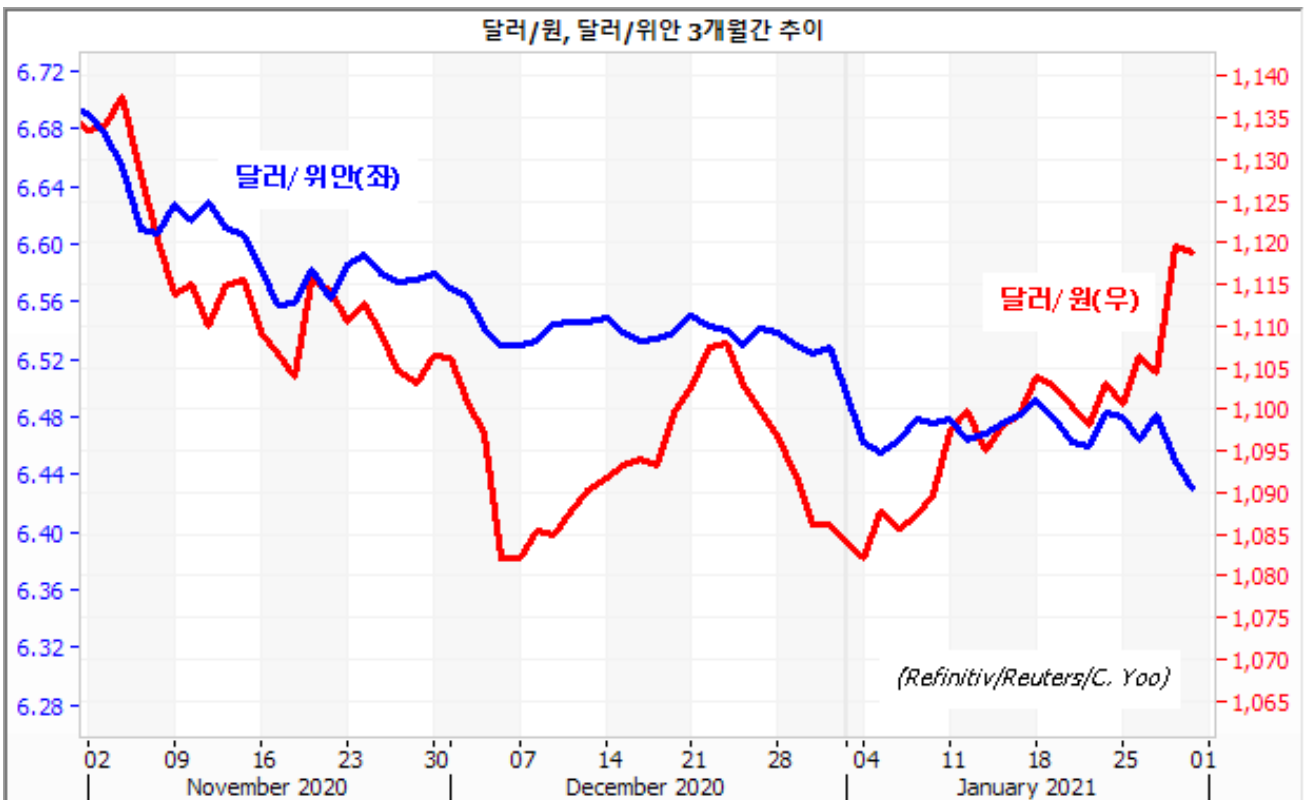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는 통화정책 수단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 은행 외환 딜러는 "주식 역송금 수요와 역외 숨 커버에도 환율의 오름폭은 크지 않았다. 역내 달러 보유도 많고 무엇보다 경기가 어떤 식으로든 회복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원화도 천천히 내려가는 그림이 맞지 않나 한다"면서 "원화가 외인 포지션과 이벤트에 오르내리겠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반응할 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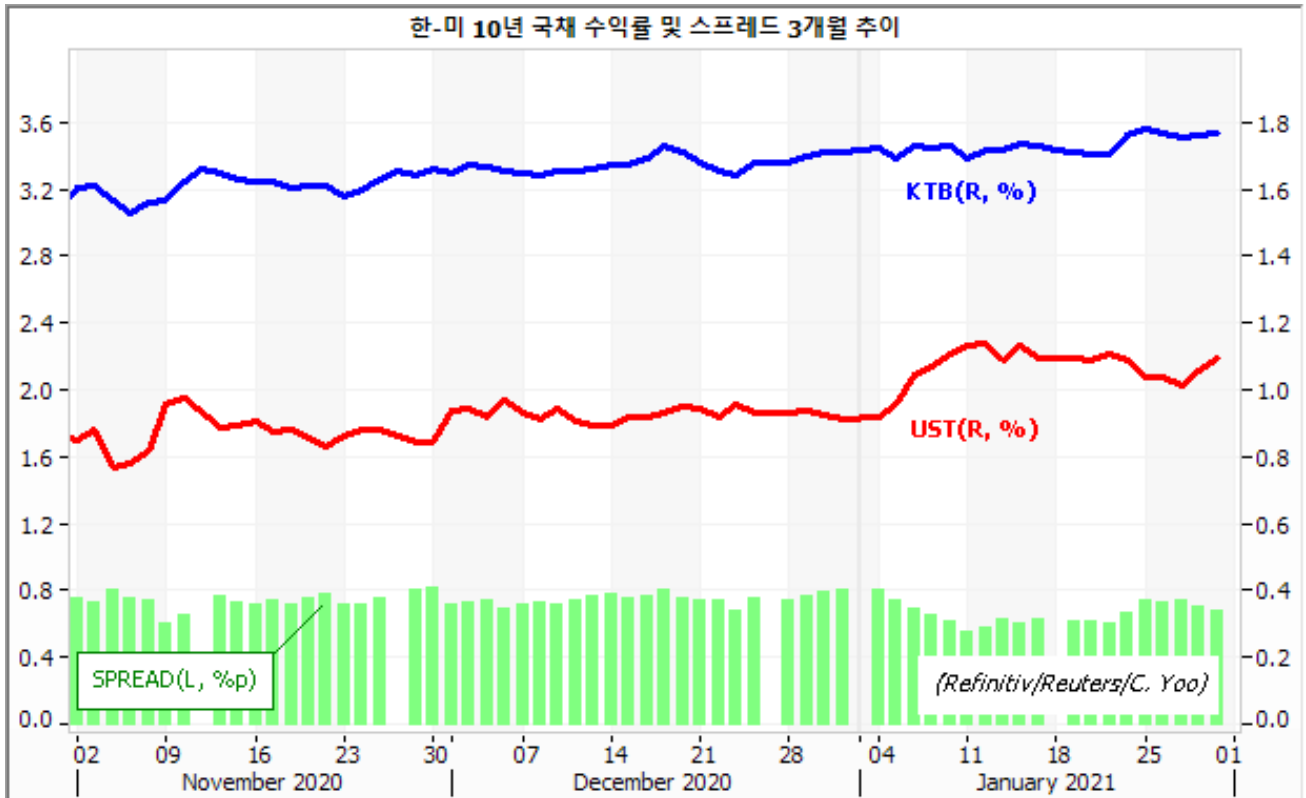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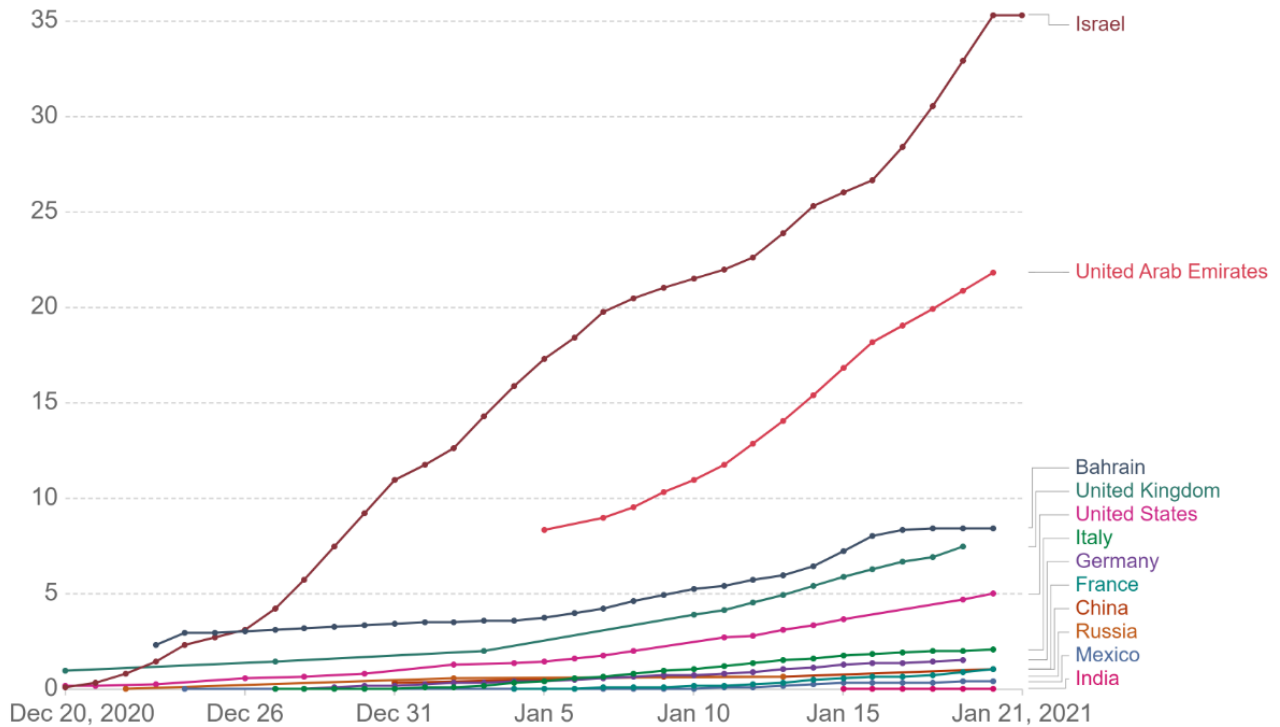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umulative COVID-19 vaccination doses administered per 100 people

This is counted as a single dose, and may not equal the total number of people vaccinated, depending on the specific dose regime (e.g. people receive multiple doses).

Our World i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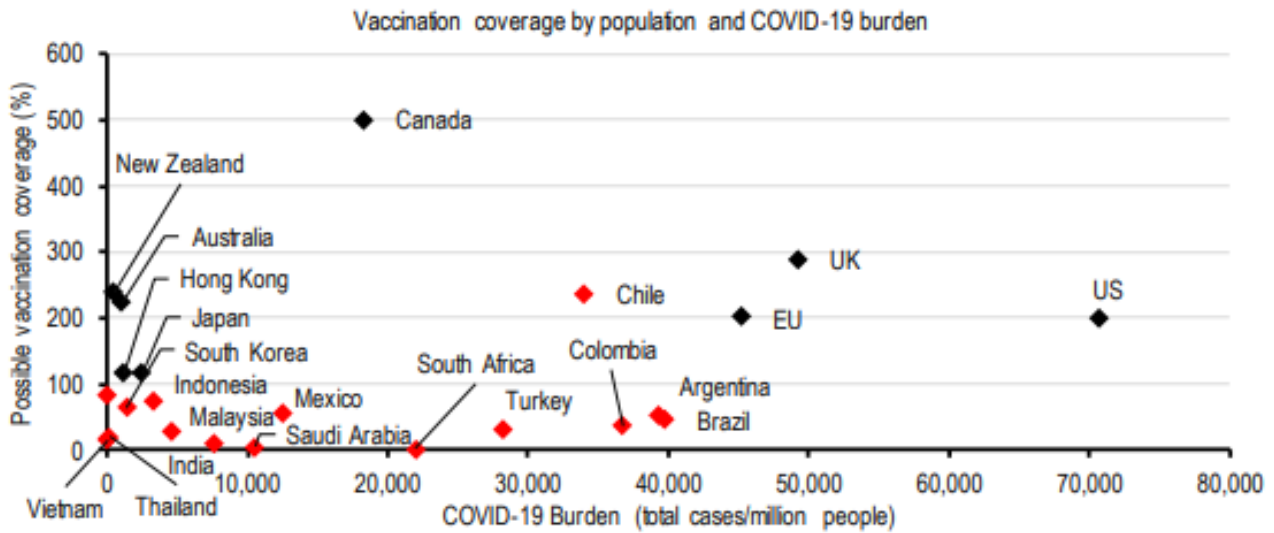


Source: Official data collated by Our World in Data – Last updated 21 January, 10:10 (London time)

CC BY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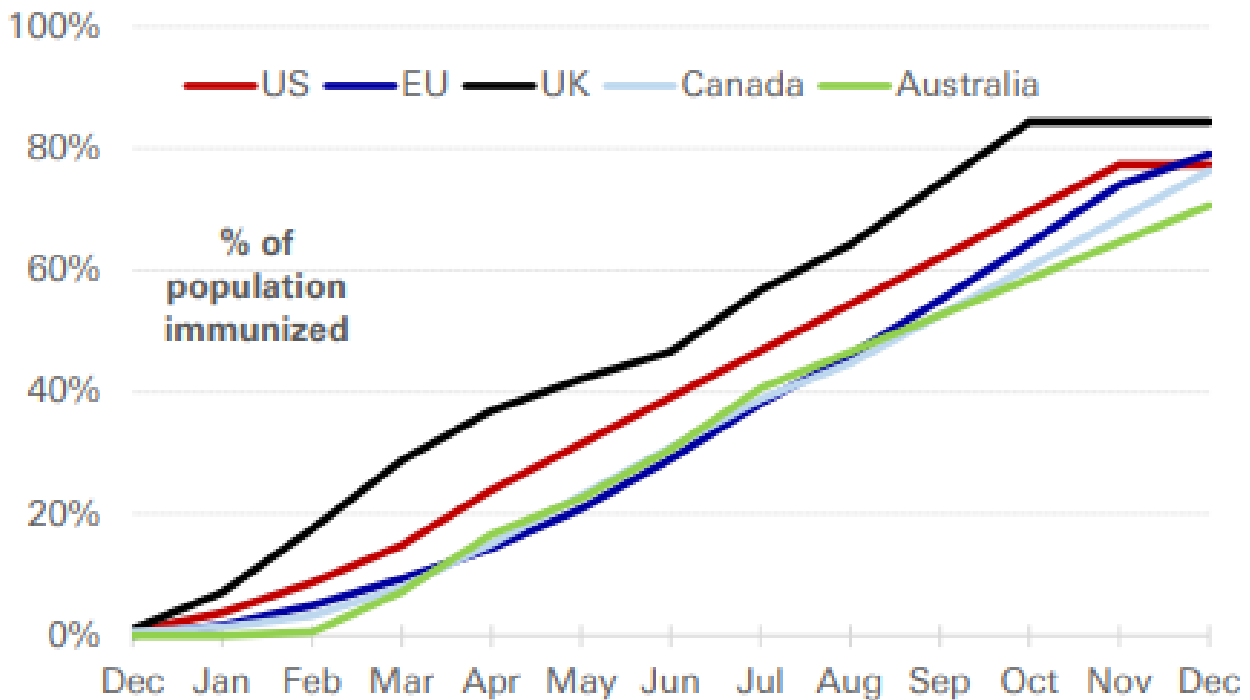
Developed economies have bought many more vaccines than emerging ones



Source: Launch & Scale Speedometer, Reuters, IMF. Note: Based on vaccines ordered and delivered, as reported. Coverage based on complete vaccine course, so have taken all vaccines except for that from Johnson & Johnson as double-dose vaccines. EM economies in red, DM in black.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igure 1: Major economies likely to vaccinate their vulnerable by late spring



Source : Deutsche Bank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